

## 시모타코의 유서 깊은 오래된 삼나무

시모타코 인공림은 약 500 년 전에 조성된,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 중 한 곳(‘가장’ 오래된 곳이 아니라고 해도)입니다. 3,700 m<sup>2</sup> 규모의 인공림에는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이끼와 양치식물로 뒤덮인 비탈에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습니다. 여기저기 보이는 그루터기는 방문자들에게 나무가 아름다운 풍경만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. 시모타코의 나무 중에는 수령이 약 400 년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나무가 세 그루 있습니다. 나머지 두 그루보다 더 커 보이는 나무는 대략 410 년 된 삼나무로, ‘역사의 증인’이라고 불립니다.

숲은 수 세기 동안 벌목과 재식재를 거듭해 왔습니다. 능선 아래쪽의 나무는 수령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. 길가와 가까울수록 베어내고 운반하여 대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능선의 정상에 가까울수록 더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. 그곳이 높이 약 55m, 둘레 5.4m 인 ‘역사의 증인’이 있는 곳입니다.

길에서부터 능선의 정상 근처에 있는 커다란 나무까지 오솔길이 이어집니다. 하지만 사유지를 지나는 오솔길이기 때문에 숲으로 들어가려면 공식 가이드를 동반해야 합니다. 능선까지 이어지는 1.3km 하이킹은 1 시간가량 소요되며 적당히 체력을 요하는 수준입니다. 가이드 투어는 가와카미 원류 투어리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투어 요금의 일부는 마을의 삼림 유지 관리 지원 목적으로 기부됩니다.